



차이나 인바운드 붐 업데이트

Dual driver, 글로벌 1위의 수혜를 주목하라

- 1~5월 차이나 인바운드 248만 명, 글로벌 1위 기록
- 한일령과 위안화 초강세, Dual driver로 인바운드 붐 지속 전망
- 투자전략: 차이나 인바운드 수혜업종, K-유통, 뷰티, 문화콘텐츠

5월 차이나 인바운드: 누적 방문객수 248.7만 명으로 글로벌 1위

- 유커의 귀환이 여전히 뜨겁다. 1~5월 중국의 한국 방문객수는 248.7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5% 증가하며 글로벌 1위로 발돋움하였다. 한국의 중국인 방문객수는 상반기 3백만 명을 돌파하고 올해 전체는 전년대비 30% 증가한 6.8백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차이나 인바운드 붐은 ① 한일령 반사 효과, ② 단체여행 비자 면제 프로그램, ③ 위안화 초강세라는 세 가지 영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Dual drivers: 한일령과 위안화 초강세

- 일본의 중국 방문객은 급감하고 있다. 1~5월 중국인 방문객은 171.7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56.2% 급감하였으며 월별 방문객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다. 지정학적 위험이 발생하면 최근접 국가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항공 인프라(교통량) 조정 영향으로 1년에 걸쳐 시프트가 확대된다. 올 상반기 한국의 중국 인바운드 증가율은 Top-4 국가(태국 +18.3%, 베트남 -2.7%)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위안화 환율의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위안화 강세, 원화 약세 조합이 결합되면서 6월 24일 현재, 226.9원/위안으로 지난해 6월 말 대비 19.9% 절상(10년 이후 평균 환율 대비 27.2%)되며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중국의 풍부한 달러 유동성과 미-중 데탕트 국면을 감안할 때 위안화 강세기조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투자전략: 차이나 인바운드 수혜 업종

- 인바운드의 경제적 효과는 방문객수(Q)와 인당 소비금액(P)에 의해 결정된다. 올해 중국 여행객의 소비지출 규모는 11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일령 발동 이후 한국의 중국 방문객수 증가와 위안화 강세가 동반하는 구매력 확대를 감안할 때 '25년 소비지출 규모 85억 달러 대비 35.7% 증가한 116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
- 올해 한국을 찾는 해외 여행객이 사상 최초로 2천만 명을 돌파하면서 차이나 인바운드 붐의 수혜는 유통, K뷰티, 문화 콘텐츠 등으로 확산될 것이다. 한국 유통산업은 인바운드 붐의 최대 수혜가 예상된다. 중국 여행객의 백화점 매출이 급증하면서 백화점의 외국인 매출/수익 증가가 본격화되고 있다. K-뷰티/헬스케어는 폭발적인 수요증가가 나타나는 부문으로 지난해 중국인 환자수는 62만 명으로 급증하였고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 화장품·생활용품은 브랜드 파워의 재편과정에 있다. 팬데믹 이후 중국의 개인화 소비가 강화되면서 중저가 인디 브랜드와 기능성 화장품(코스메슈티컬) 선호도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 현지 생산 및 한국형 트렌드 제품 공급에 우위에 있는 ODM 기업과 인디 브랜드 기업의 수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항목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차이나 인바운드 붐

Dual drivers

차이나 인바운드의 확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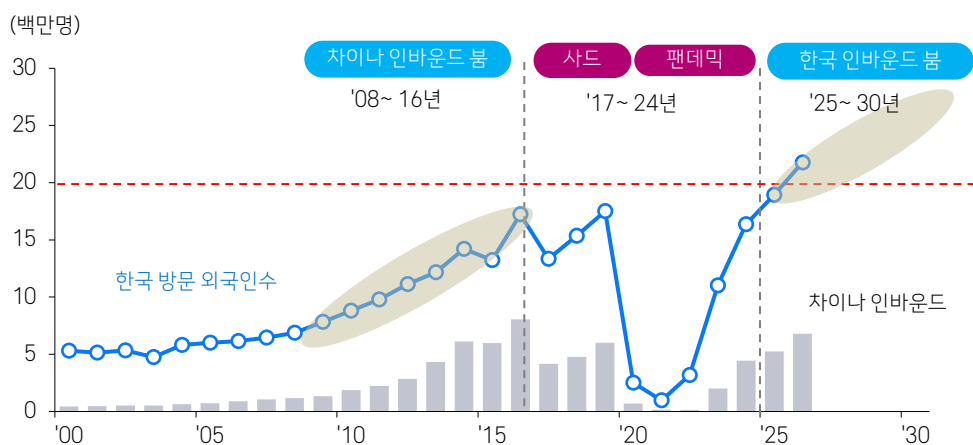
- 유커의 귀환이 여전히 뜨겁다. 1~5월 중국의 한국 방문객수는 248.7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5% 증가하며 글로벌 1위로 발돋움하였다. 한국의 중국인 방문객수는 상반기 3백만 명을 돌파하고 올해 전체는 전년대비 30% 증가한 6.8백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차이나 인바운드 붐은 ① 한일령 반사 효과, ② 단체여행 비자면제 프로그램, ③ 위안화 초강세라는 세 가지 영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첫째, 한일령 반사효과. 일본의 중국 방문객은 급감하고 있다. 1~5월 중국인 방문객은 171.7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56.2% 급감하였으며 월별 방문객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 해외여행은 한국과 일본, 태국과 베트남이 각각 경쟁과 보완관계에 있어 지경학적 위험이 발생하면 최근접 국가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항공 인프라(교통량) 조정 영향으로 1년에 걸쳐 시프트가 확대된다. 올 상반기 한국의 중국 인바운드 증가율은 Top-4 국가(태국 +18.3%, 베트남 -2.7%)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단체여행 비자면제 프로그램. 지난해 하반기 중국 단체여행 비자면제 정책(25년 9월 29일~ 26년 6월말)이 시행되면서 단체 여행이 증가하고 있다. 한일령 이후 단절되었던 중국 단체여행 비중은 지난해 1분기 8.6% → 4분기 16.5%까지 상승하였다. 중국 단체여행 비자 면제 프로그램 연장이 유력한 가운데 사드 제재 이전 단체여행 비중이 38.4% 수준임을 감안하면 올해 단체 여행비중은 2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는 중국 패키지 관광 정상화시 단체 여행이 40%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셋째, 위안화 초강세. 위안화 환율의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위안화 강세, 원화 약세 조합이 결합되면서 6월 24일 현재, 226.9원/위안으로 지난해 6월 말 대비 19.9% 절상(10년 이후 평균 환율 대비 27.2%)되며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중국의 풍부한 달러 유동성과 미-중 데탕트 국면을 감안할 때 위안화 강세기조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위안화 강세는 해외여행 수요 확대와 중국 여행객의 구매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이다. 지난해 위안화 환율 4.2% 강세 구간에서 중국 해외여행은 15.1% 증가한 바 있다.

사상 최고의 한국 인바운드 붐,



자료: 한국관광공사, CEIC, 삼성증권

차이나 인바운드 경제효과 분석

- 인바운드의 경제적 효과는 방문객수(Q)와 인당 소비금액(P)에 의해 결정된다. 올해 중국 여행객의 소비지출 규모는 11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일령 발동 이후 한국의 중국 방문객수 증가와 위안화 강세가 동반하는 구매력 확대, 이 두 가지 요인을 감안할 때 '25년 소비지출 규모 85억 달러 대비 35.7% 증가한 116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

해외여행 산업은 정치, 문화적 이슈로 인해 소비 절벽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방문객 정상화는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고 대체 국가로의 소비자 이동은 1~2년에 걸쳐 점진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중-일 관계의 급전환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 중국의 일본 여행객 400~450만 명의 근거리 해외여행 수요 변화가 불가피하다. 다만, 소비패턴의 변화와 함께 교통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한일령 장기화에 따른 반사효과는 내년까지 230만 명으로 추산된다.

팬데믹 이전('15~ '19년) 중국 여행객의 인당 평균 소비지출액은 2,001달러로 한국 입국자 평균(1,480달러) 대비 35.2% 높은 구매력을 발휘해왔다. 리오프닝 이후 중국 여행객의 소비패턴이 개인화, 경험을 중심으로 한 패턴으로 전환되었으나 최근 위안화 초강세가 진행되면서 쇼핑 장소에서 백화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25년 백화점 쇼핑 비중 32.0%)하고 있어 올해 인당 소비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5~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효과를 보수적으로 추산하기 위해 5% 증가율을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26년 차이나 인바운드 경제효과 추산

소비지출 규모: 116억 달러 = ① 방문객수(Q) * ② 1인당 소비지출 규모(P)

① 방문객수 = 6.8백만 명,

'25년 차이나 인바운드(5.3백만 명) * 30% 증가(1~4월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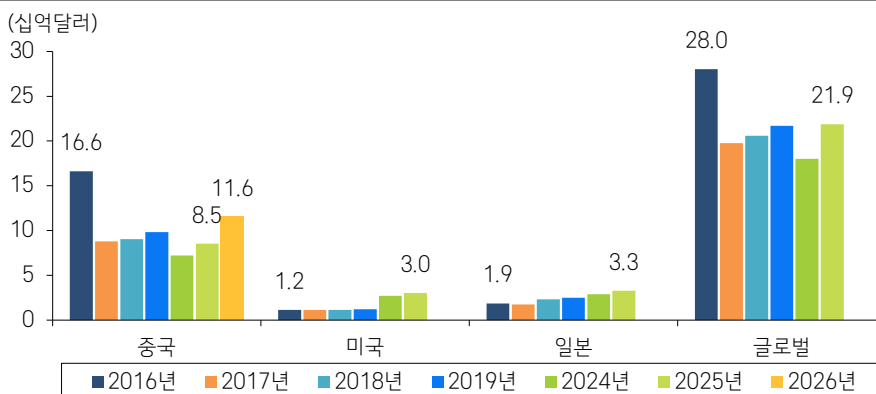
* 17년 한일령 당시 일본 차이나 인바운드 증가 추세

: '16년 6.3백만명 → '17년 7.4백만명 → '18년 8.4백만명

② 1인당 소비지출 = 1,700달러, '25년 1인당 소비지출 1,620달러 * 5% 증가

* 최근 1년 원화 대비 위안화 19.9% 절상

한국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소비지출 규모, 차이나 압도적인 No 1



자료: 한국관광공사, 삼성증권 추정

차이나 인바운드 수혜 업종

유통, K-뷰티 등 수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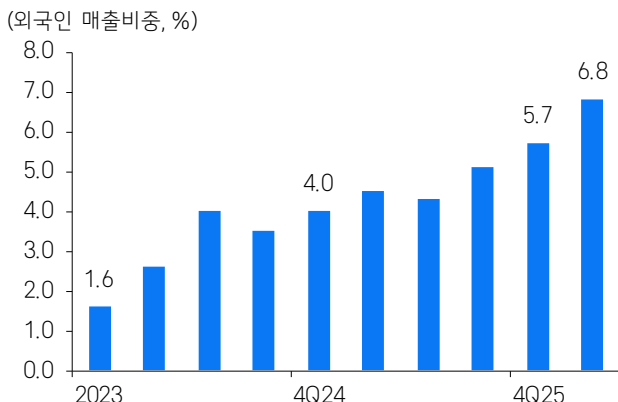
- 올해 한국을 찾는 해외 여행객이 사상 최초로 2천만 명을 돌파하면서 차이나 인바운드 붐의 수혜는 유통, K뷰티, 문화 콘텐츠 등으로 확산될 것이다. 한국 유통산업은 인바운드 붐의 최대 수혜가 예상된다. 중국 여행객의 백화점 매출이 급증하면서 백화점의 외국인 매출/수익 증가가 본격화되고 있다. 당사 유통 애널리스트는 한국 백화점 업종의 1분기 외국인 매출 비중은 4~7% 수준으로 지난해 3~5%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백화점 외국인 매출증가율이 50% 이상 유지될 경우, 백화점 기존점 성장률을 2.5~3.5%pt 담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K-뷰티/헬스케어는 인바운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중국인 환자수는 62만 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37.5% 급증하며 전체 외국인 환자 중 중국 비중은 30.8%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중국 소비자의 개인 피부, 성형 및 의료 서비스 수요 확대로 인해 중국의 의료관광 비중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24~25년 중국인 환자 1인당 평균 지출액은 937만원으로 일본(321만원) 등 타 국가 대비 고단가 미용/성형 시술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화장품/생활용품은 브랜드 파워가 재편되는 과정에 있다. 과거 '08~19년 인바운드 붐 당시는 면세점과 리테일 망을 통한 프리미엄 브랜드의 약진이 뚜렷하였으나 팬데믹 이후 중국 인바운드는 개별여행과 개인화가 강화되면서 올리브영 등 리테일 스토어를 중심으로 중저가 인디 브랜드와 기능성 화장품(코스메슈티컬) 선호도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 현지 생산 및 한국형 트렌드 제품 공급에 우위에 있는 ODM 기업과 인디 브랜드 기업의 수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이나 인바운드 붐 경제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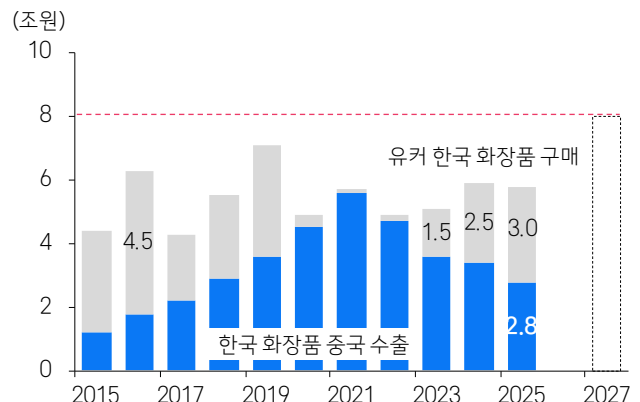
구분	인바운드 효과	26년 전망
I. 유통: 백화점	• 백화점: 외국인 매출/수익 기여도 증가: '26년 1Q 한국 백화점 외국인 매출 비중 4~7%	• '26년 백화점 외국인 매출 증가율 +50%: 기존 백화점 성장률 2.5~3.5%pt 상승
II. K-뷰티, 헬스케어	• 화장품, 리테일 스토어 중심 인디 브랜드 매출 증가 • K-헬스케어, 중국의 미용/성형 수요 고성장	• 유커 한국 화장품 구매 3조원 돌파 전망 • 고가 미용/성형 수요 70~80만 입국 예상
III. 문화 콘텐츠	• 한국 문화 콘텐츠 수요 확대 효과	• 한한령의 추가 완화 주목

자료: 삼성증권 정리

신세계, 외국인 매출 신세계 진입



유커의 화장품 구매, 화장품 수출을 넘어서다



자료: 신세계, 삼성증권

차이나 인바운드 비교(중국 해외여행 Top-4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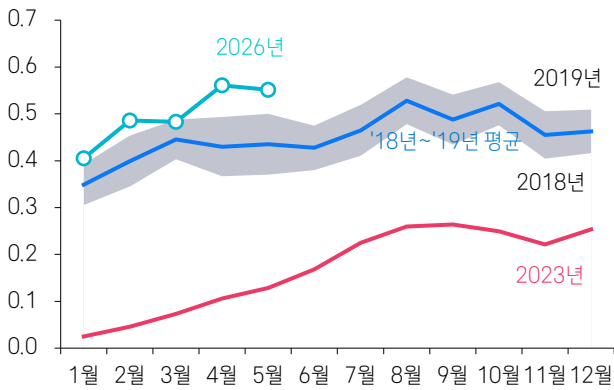
순위	지역	'26년 1~5월 (천명)	'25년 방문객수 (천명)	'19년 방문객수 (천명)	'26. 1~5월 증감률 (%)
1	한국	2,487	5,264	6,023	27.5
2	태국	2,318	4,474	10,997	18.3
3	베트남	2,298	5,282	5,806	(2.7)
4	일본	1,717	9,096	9,594	(56.2)

자료: CEIC, 삼성증권

자료: CEIC, 삼성증권

월별 차이나 인바운드 입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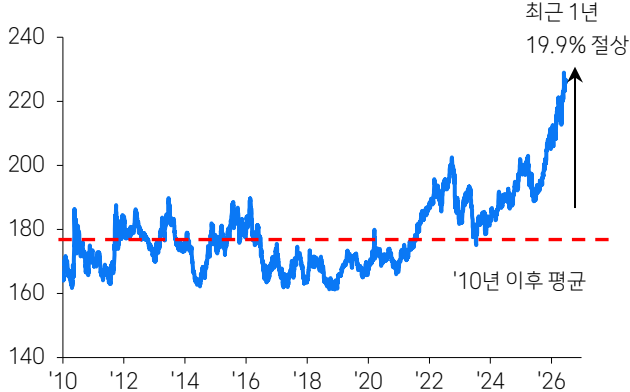
(월간 한국방문객수, 백만명)



자료: 한국관광공사, 삼성증권 추정

위안화 초강세, 구매력 확대로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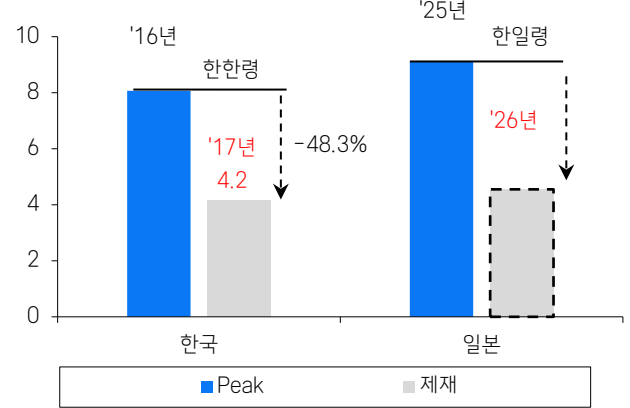
(원/위안)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정치 제재와 인바운드 영향, 이제 한일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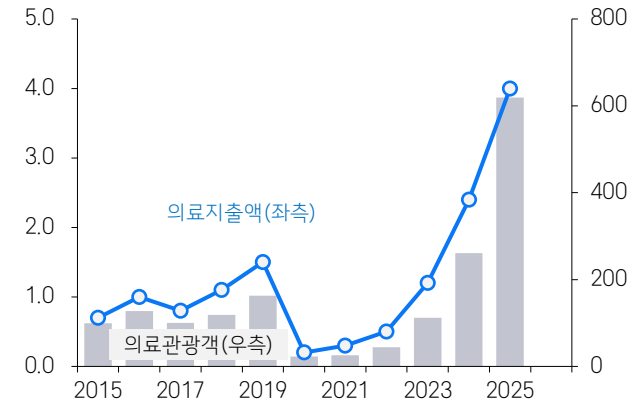
(백만명)



자료: CEIC, 삼성증권

중국 의료관광, 사상최대 러시

(조원)



자료: 보건복지부, 삼성증권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